

# KMI 동향분석

**VOL.88**  
2018 JUNE

발간년월 2018년 6월(통권 제88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 수산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이상철 양식어촌연구실 전문연구원  
(yi1@kmi.re.kr/051-797-4576)  
마창모 양식어촌연구실장  
(mcm1866@kmi.re.kr/051-797-4581)  
김세인 양식어촌연구실 연구원  
(sein87@kmi.re.kr/051-797-4575)

2011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가 국제양식규범으로서 지속가능 양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한 양식 인증제가 여러 국가 및 국제 민간공익단체에 의해 출범, 시행되고 있다. 특히 수산양식책임관리회(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ASC)인증은 대표적인 지속가능 양식 인증으로 북유럽 양식수산물 시장에서 전체 유통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북미 및 아시아 지역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지속가능 양식에 대한 시장의 대응도 적극적이다. 월마트는 2025년까지 취급 양식 수산물을 전량 지속가능 생산 인증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유통업체인 코스트코(COSTCO)는 국제양식규범 준수를 위한 양식개선 프로그램(Aquaculture Improvement Program, AIP)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 호텔 기업인 하얏트는 국제양식규범 준수 인증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케아(IKEA)를 필두로 ASC 인증 제품을 적극적으로 유통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적으로 국제양식규범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 양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식업계의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전복, 미역, 굴 양식 어가에서 시험적으로 ASC 인증 취득을 모색하고 있지만 과거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정립된 기존 양식으로는 ASC 인증 기준의 문턱을 넘기 힘들다. 특히 기존의 관행적인 양식 방법이 ASC 인증 취득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천해 양식 주력 품목으로 평가 받고 있는 김의 경우 일부 어가의 무기산 사용에 따라 ASC 인증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고, 전복, 굴, 어류 해상가두리 양식과 같은 바다 내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식의 경우에는 양식장 저질 관리 문제로 인해 취득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내 양식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외면당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국제양식규범의 준수 확산에 대비하여 국내양식업계는 국내외 시장 요구, 소비자 인식, 지속가능한 양식 이행 노력에 맞추어 지속가능 양식 생산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식개선 프로그램(AIP)을 통하여 양식어가, 조합, 환경관련 단체, 정부 당국자, 과학자 등이 모여 지역 양식업계의 체질 개선 및 ASC 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양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

## 국제양식규범 준수를 위한 지속가능양식 인증제 확산

### ■ 국제양식규범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양식을 위한 양식 생산 인증제 확대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UNFAO)의 ‘양식인증 기술지침(Technical Guidelines on Aquaculture Certification)’ 등이 대표적인 국제양식규범이며 동물복지, 식품안전, 환경문제, 사회경제적 요소(윤리 및 노동 문제를 포함) 등을 포함하고 있음. 글로벌 양식업계는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는 지속가능양식 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산업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음
- 기존 양식 생산 인증제의 경우 유기농 인증 목적이 강했으나 지속가능양식의 경우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음

표 1. 지속가능양식 관련 인증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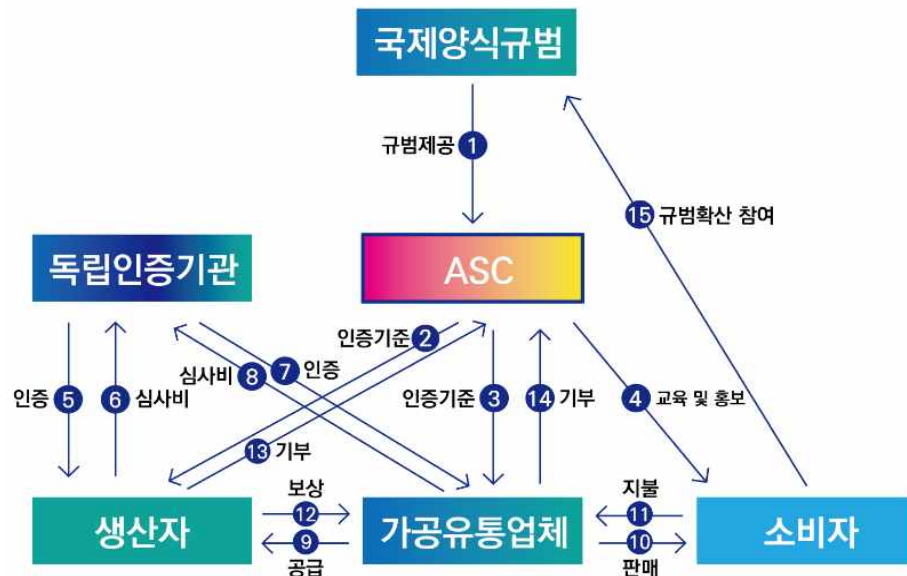
인증 주체	지리적 적용범위	중점 인증 목표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ASC)	글로벌	지속가능성
Friend of the Sea	글로벌	환경
EU Organic	글로벌	유기농
Soil Association	영국	유기농
USDA Organic	미국	유기농
IOFAG	아일랜드	유기농
Naturland	글로벌	유기농/사회적 책임성
Seafood Watch	글로벌	환경
AFRISCO	남부 아프리카	유기농
KRAV	스칸디나비아	유기농
Organic Pasifika	태평양	유기농
Organic Farmers and Growers	영국	유기농
ECOCERT	프랑스	유기농
AsureQuality	뉴질랜드	유기농
Australia Certified Organic	호주	유기농
BioGro	뉴질랜드	유기농
FairWild	글로벌	유기농/사회 책임성
Standards Council of Canada	캐나다	유기농

자료 : [http://seagriculture.eu/wp-content/upload\\_folders/seagriculture.eu/2016/10/2.2-Dan-Hoggarth-Development-of-a-joint-MS-ASC-standard.pdf](http://seagriculture.eu/wp-content/upload_folders/seagriculture.eu/2016/10/2.2-Dan-Hoggarth-Development-of-a-joint-MS-ASC-standard.pdf) (2018. 6. 1. 검색)

### ■ 지속가능양식 인증제는 상품 구매 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존 양식을 지속가능한 양식으로 변화 촉진

- 소비자는 지속가능양식 인증 수산물 구매를 통해 지속가능양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지를 표명하고 동시에 양식업자는 소비자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양식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음. 이러한 선순환 메카니즘은 기존양식을 지속가능양식으로 변환시키는 원동력임

그림 1. 소비자 참여형 인증제를 활용한 지속가능양식 전환 모형



자료 : ASC 인증제 사례를 적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ASC 로고 사용에 대한 대가는 로고 사용자가 기부형식으로 지불

## ■ ASC, 대표적인 지속가능양식 인증제로 정착

- 2010년 비영리 독립기구인 수산양식책임관리회(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이하 ASC)는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과 지속가능 무역 이니셔티브(Dutch Sustainable Trade Initiative, IDH)가 공동 설립하였음. ASC는 수산자원의 남획과 양식 과밀화로 인한 해양 오염 및 생태계 파괴 방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식을 추구하는 것이 주요 사명임
- ASC 기준은 각 양식장의 활동을 환경적, 사회적 요구조건에 맞추어 평가하며, 인증 절차는 독립된 제3자 단체가 진행하고 결과 보고서는 ASC 웹사이트에 공개됨. ASC 로고는 소비자가 최소한의 환경적, 사회적 영향 하에 양식된 제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보증함

그림 2. ASC 인증 로고(좌) 및 ASC 인증 로고가 부착된 제품(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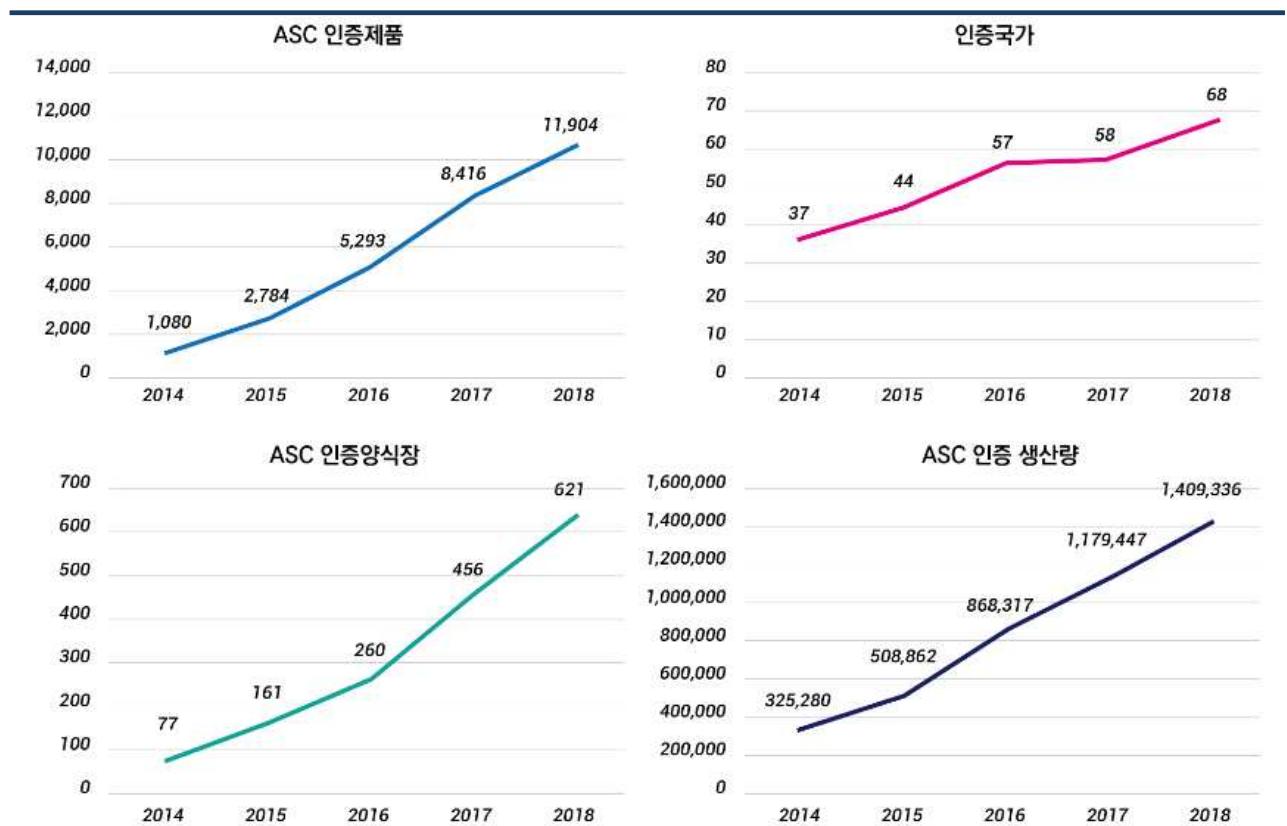


자료(좌) : ASC 홈페이지(<https://www.asc-aqua.org/our-logo/logo-user-guide/>) (2018. 5. 9. 검색)

자료(우) : <http://aquaculturedirectory.co.uk/first-asc-certified-shrimp-products-available-time-christmas> (2018. 5. 9. 검색)

- 2018년 5월 기준, 621개의 ASC 인증 양식장에서 8개 품종(연어, 새우, 조개류, 송어, 틸라피아, 메기, 방어, 전복) 140만 9336톤의 양식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음
- ASC 인증 제품은 68개국 1만 1904개로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네덜란드 1770개(15%), 독일 1664개(14%), 벨기에 1231개(10%) 등 유럽국가가 80% 이상을 차지함. 아시아에서는 일본 294개(2%), 중국 258개(2%), 홍콩 132개(1%), 싱가포르 111개(1%)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의 경우 총 29종의 수입 수산물이 ASC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음
- 그림 3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ASC 양식장 1개소당 평균 2270톤을 생산하며 이는 비교적 규모화된 양식업체를 중심으로 인증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림 3. ASC 인증 관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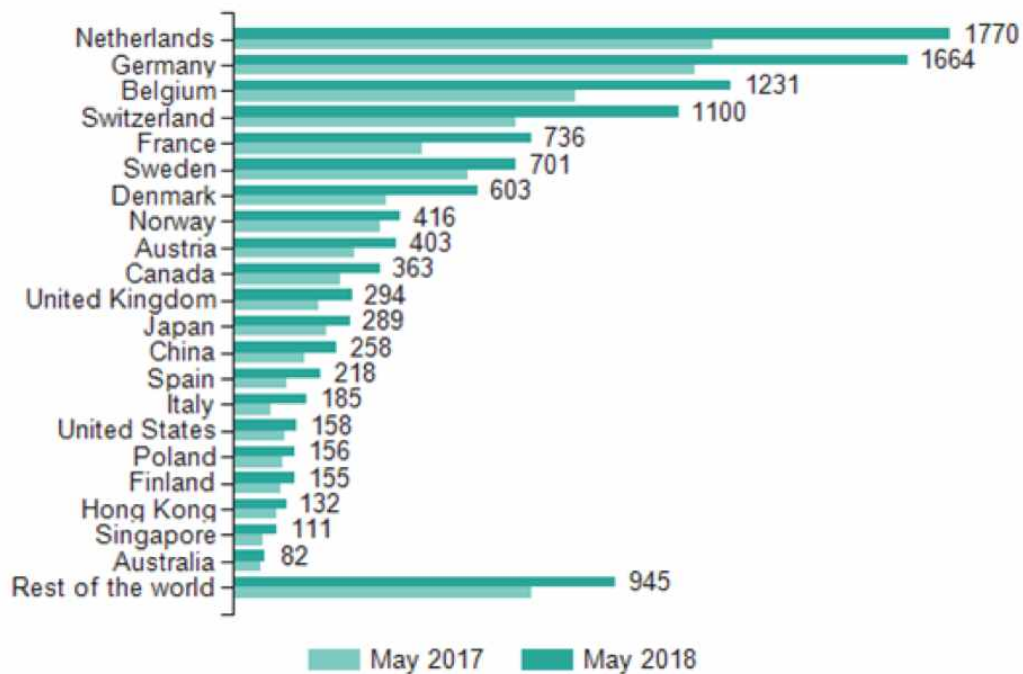


자료 : ASC 홈페이지(<https://www.asc-aqua.org/news/certification-update/>)를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2018. 6. 4. 검색)

- ASC 보고에 따르면,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 주요 북유럽 시장은 전체 시장 유통 물량의 50% 이상이 ASC 인증 제품임<sup>1)</sup>

1) <https://www.asc-aqua.org/wp-content/uploads/2017/07/ASC-STRATEGIC-PLAN-2015-2017.pdf> (2018. 6. 4. 검색)

그림 4. 국가별 ASC 인증 제품 현황(2018년 5월 기준)



자료: ASC 홈페이지(<https://mailchi.mp/asc-aqua/xr162vrjqv-2118633?e=9ebd51a70d>) (2018. 5. 11. 검색)

## ■ ASC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시장 수요 증가

-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ASC 인증은 북미 및 아시아 지역으로 외연이 확대되고 있으며 건전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커지면서 글로벌 호텔 및 외식 기업을 중심으로 ASC 인증 제품의 사용 의무화 움직임이 확대됨
  - 하얏트 호텔(Hyatt Hotels Corporation)은 식자재 구매를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체 수산물 식자재 구입의 15% 이상을 ASC와 같은 지속가능한 생산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함<sup>2)</sup>
  - 상그릴라 호텔(Shangri La hotel group)과 미국 참치 전문 레스토랑 밤부스시(Bamboo Sushi)는 식재료에 ASC 인증 수산물이 사용된 경우 메뉴판에 이를 별도 표기하고 있음<sup>3)4)</sup>
- 월마트(Wal-Mart)와 코스트코(COSTCO) 등 대형 유통업체는 지속가능양식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국제양식규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2) <http://newsroom.hyatt.com/Hyatt-Announces-Major-Global-Initiative-to-Source-Seafood-Responsibly-in-Partnership-With-World-Wildlife-Fund> (2018. 5. 9. 검색)

3)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shangri-la-hotel-group-to-finish-msc-certification-in-june-for-mainland-properties> (2018. 5. 11. 검색)

4) <http://www.intrafish.com/marketplace/1475873/oregon-sushi-restaurant-first-to-carry-asc-logo-on-menu-in-us> (2018. 5. 11. 검색)



- 2025년까지 월마트는 판매되는 양식 수산물의 전부를 지속가능양식 인증 제품이나 양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어가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발표함<sup>5)</sup>
- 코스트코는 취급중인 틸라피아 전부를 ASC 인증 제품으로 대체하였으며 세계자연기금(WWF)과 같은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양식개선 프로그램(AIP)을 지원하고 있음<sup>6)</sup>
- 세계적인 대형 할인점 까르푸(Carrefour)는 향후 모든 선어(fresh fish)의 경우 ASC 또는 해양 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취급할 것임을 밝힘<sup>7)</sup>
- 2020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단 급식 식자재를 전량 지속가능양식 수산물 인증 제품과 양식개선 프로그램(AIP) 참여 제품으로 사용하여 지속가능양식을 지지할 것임을 밝힘<sup>8)</sup>

## 국제양식규범 준수를 위한 소비자 참여 확대에 양식업계 적극적 대응 필요

### ■ 국내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내외 시장 및 국내여건을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 필요

- 국제양식규범의 확산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제고로 기존양식에서 지속가능양식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임. 일차적으로 주력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ASC 인증제 확산에 따른 대응이 요구됨
- 지난해 미화 5억 불 이상 수출했던 김의 경우 ASC 인증제가 정착중인 일본과 미국이 주력 시장 이므로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5) <https://corporate.walmart.com/policies> (2018. 5. 15. 검색)

6) <https://www.costco.com/sustainability-fisheries.html> (2018. 5. 15. 검색)

7) <https://www.seafoodsource.com/features/retailers-make-big-promises-during-france-s-sustainable-seafood-week> (2018. 5. 11. 검색)

8) [http://seafoodlegacy.com/en/blog\\_en/20170414-1284.html](http://seafoodlegacy.com/en/blog_en/20170414-1284.html) (2018. 5. 9.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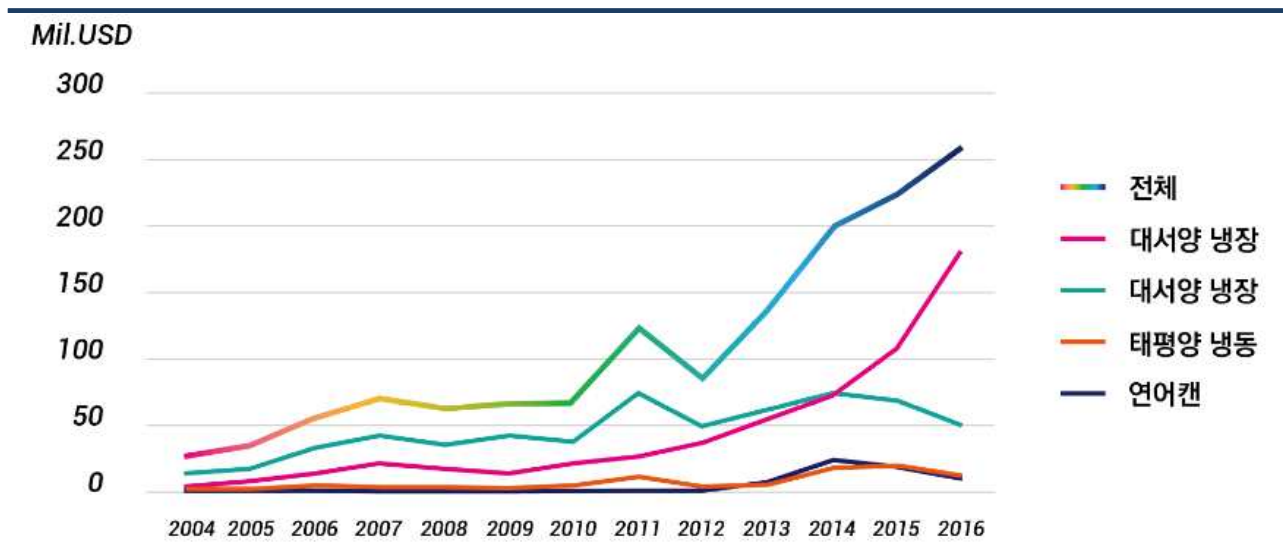
표 2. 국산 김 수출 변화 추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물량(톤)	금액(천\$)	물량(톤)	금액(천\$)	물량(톤)	금액(천\$)	물량(톤)	금액(천\$)	물량(톤)	금액(천\$)
	전체	15,908	251,694	15,556	274,390	17,694	304,868	17,835	353,016	21,231	513,246
1	일본	2,557	58,628	2,623	59,104	2,530	51,181	3,371	78,294	4,144	114,763
2	중국	1,286	33,006	1,734	45,257	2,468	66,422	2,601	68,221	3,194	88,929
3	미국	5,134	67,300	4,708	70,917	4,808	71,512	3,744	70,331	4,059	86,581
4	태국	2,464	36,630	2,137	32,460	2,635	38,105	3,196	55,123	3,429	72,904
5	대만	515	10,176	503	11,006	817	15,864	924	18,947	1,268	33,009
6	러시아	258	5,249	295	6,140	203	4,488	197	4,360	654	18,209
7	캐나다	639	9,360	569	11,095	530	10,659	643	11,653	756	17,005
8	호주	541	4,079	499	4,992	725	6,223	536	5,649	473	8,559
9	베트남	103	1,556	152	2,809	185	3,761	248	5,062	330	7,136
10	홍콩	273	7,102	340	8,743	342	9,213	268	6,954	265	7,118

자료: KMI 해외시장정보센터

- 수산물 내수시장의 경우 현재까지 ASC 인증제에 대한 인지도는 미미한 편이나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증가와 함께 외국계 유통 업체의 ASC 취급 품목이 확대되면 ASC 인증 및 지속가능양식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5. 연도별 연어 수입액 변화



자료 : UN comtrade



- ASC 내부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까지 ASC 인증 품목을 2017년 대비 4배로 늘리고 현재 3개 지부(유럽, 미국, 아시아 태평양)로 구성된 조직을 7개 지부(북미, 남미, 유럽, 극동 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및 태평양)로 확장하여 ASC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sup>9)</sup>
- 또한 ASC는 타 인증 단체 및 환경 단체와 연계하여 지속가능양식의 중요성을 시민사회에 알릴 예정이며 그 결과 기존양식의 폐해가 심각한 품목의 경우 국내 소비자의 외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 ■ 기존 양식에서 지속가능양식으로 다각적인 전환 노력 필요

- 기존 양식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점으로 인해 지속가능양식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음. 전복, 굴, 어류 해상가두리 양식과 같은 바다 내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식의 경우 양식장 저질 관리 문제로 인해 ASC 인증 취득 가능 여부가 불투명함
- ASC 인증은 품종별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전복의 경우 양식장 저질 관리 기준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어장관리법에 의거 어류 가두리 양식장을 대상으로 저질 오염도를 평가하고 있으나 최근 4개년도 실적 기록에 의하면 평가 기간 중 약 51%에 달하는 양식장이 저질 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음

표 3. 어류 가두리 양식장 저질 관리 평가 결과

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합계
2014년	1 (8%)	5 (42%)	6 (50%)	-	12 (100%)
2015년	11 (34%)	4 (13%)	13 (40%)	4 (13%)	32 (100%)
2016년	5 (71%)	-	2 (29%)	-	7 (100%)
2017년	-	1 (25%)	1 (25%)	2 (50%)	4 (100%)

자료: 국립수산물학원

\* 3, 4등급은 면허연장기간 제한 등급으로 어장 환경 관리가 필요함

- 해조류 ASC 인증 기준의 경우 국내 김양식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활성처리제 및 무기산 사용을 허용하지 않음. 또 다른 지속가능양식 인증제인 FOS 인증의 경우 무기산은 금지하고 있으나 제한된 범위에서 활성처리제 사용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음
- EU 오가닉(EU organic) 기준의 경우 보다 보수적인 접근을 하여 화학적 방식의 산처리제 허용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장흥지역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은 기계적 방식의 처리만 허용하고 있음

9) <https://www.asc-aqua.org/wp-content/uploads/2017/07/ASC-STRATEGIC-PLAN-2015-2017.pdf> (2018. 6. 4. 검색)

- 독일의 나투르란트(Naturland) 유기농 기준의 경우 해조류 대상 품종을 스피루리나와 크로렐라로 가정하여 보다 엄격한 생산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국제양식규범 기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업계는 지속가능양식을 위한 생산 체계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 노력이 필요함

표 4. 해조류 ASC 인증 구성 요소 비교 결과

인증 주체	해조류 ASC 인증 구성 분야				
	지속가능한 자원	환경영향	효과적 관리	사회적 책무	지역사회 관계
ASC	○	○	○	○	○
Friend of the Sea	○	○	○	○	○
EU Organic	○	○	-	-	-
Soil Association	○	○	○	○	-
USDA Organic	신유기양식 규정 제정 중				
IOFAG	○	○	-	-	-
Naturland	○	○	-	○	○
Seafood Watch	○	○	○	-	-
AFRISCO	-	○	○	○	-
KRAV	-	○	○	○	-
Organic Pasifika	-	○	○	○	-
Organic Farmers and Growers	○	○	○	-	○
ECOCERT	○	○	○		
AsureQuality		○	○	○	○
Australia Certified Organic	○	○	○	○	-
BioGro	○	○	○	○	○
FairWild	○	○	○	○	-
Standards Council of Canada	○	○	-	-	-

자료 : \* 각 분야별 세부 인증 항목 존재

<http://seagriculture.eu/wp-content/uploads/seagriculture.eu/2016/10/2.2-Dan-Hoggarth-Development-of-a-joint-MS-C-ASC-standard.pdf> 내용 필자 정리 (2018. 6. 1. 검색)

## ■ 양식개선 프로그램(Aquaculture Improvement Program, AIP) 도입 필요

- 현재 ASC 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 양식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한계적 상황을 맞고 있는 양식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속가능양식으로의 전환은 어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될 수 있음.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식개선 프로그램(AIP)이 해법으로 제시됨
- AIP는 지역 양식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사회 문제에 대해 관련 이해당사자가 모여 해결하는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임. 구체적으로 AIP는 지역 양식 어가, 조합, 환경관련 NGO, 정부 당국자, 과학자 등이 모여 지역 양식 현안을 해결하고 개선을 위한 포럼 역할을 함<sup>10)</sup>

- AIP는 기존의 지속가능양식 인증 기준(ASC, FOS 등)을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하며 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로드맵 마련, 편드레이징, 역할 분담, 이행 투명성 확보 등을 담당함
- 지속가능양식 인증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는 인증제품의 범주에 AIP 수행 어가의 생산 수산물을 포함해 지속가능양식 전환의 과도기에 있는 어가를 간접 지원하고 있음
- AIP는 지역 어가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가동되어 지역 사회의 협조를 확보할 수 있고 환경단체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지역 활동가가 부족한 부분 및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해 개선 프로그램 완성을 촉진시킬 수 있음
- 구체적으로 AIP는 ASC 그룹인증 모델, 지역 시범사업 모델, 지역 인증 모델(Full zone to ASC), 품종 인증 모델(협회 및 지구 중심) 등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AIP 참여 주체의 성격에 따라 상향식으로 모델을 재설정할 수 있음<sup>11)</sup>

10) <http://seafoodsustainability.org/aquaculture/> (2018. 6. 1. 검색)

11) <https://www.sustainablefish.org/Programs/Aquaculture/Aquaculture-Improvement-Projects> (2018. 6. 1. 검색)

##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듦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양식산업,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 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 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제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노동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URL: <http://www.kmi.re.kr/>